2027 고2 문학 지학사

2027 고2 문학 지학사 | 2(1)(1) 속미인곡 기출 서술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속미인곡」에서는 '두 여인의 대화 형식'과 '여성 화자 설정'과 같은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특히 '갑녀'와 '을녀' 두 여성 화자의 대화 형식(문답 구조)이 지니는 효과와 '을녀'의 하소연에 담긴 정서(연군지정)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롬', '안개', '일월' 등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묻는 문제와, '낙월'과 '구ᄌᆞᆫ비'에 담긴 화자의 태도 차이를 분석하는 유형도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나아가, 「사미인곡」과 같은 다른 '충신연주지사' 작품과 형식, 표현, 태도 등을 비교 감상하는 유형도 출제되므로,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뎨 가ᄂᆞᆫ 뎌 각시 본 듯도 ᄒᆞᆫ뎌이고
텬샹(天上) 빅옥경(白玉京)을 엇디ᄒᆞ야 니별(離別)ᄒᆞ고
ᄒᆡ 다 뎌 져믄 날의 눌을 보라 가시ᄂᆞᆫ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ᄉᆞ셜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얌즉 ᄒᆞᆫ가마ᄂᆞᆫ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ᄉᆡ
나도 님을 미더 군ᄠᅳ디 젼혀 업서
이ᄅᆡ야 교ᄐᆡ야 어ᄌᆞ러이 ᄒᆞ돗ᄯᅥᆫ디
반기시ᄂᆞᆫ ᄂᆞᆺ비치 녜와 엇디 다ᄅᆞ신고
누어 ᄉᆡᆼ각ᄒᆞ고 니러 안자 혜여ᄒᆞ니
내 몸의 지은 죄 뫼ᄀᆞ티 빠혀시니
하ᄂᆞᆯ히라 원망ᄒᆞ며 사ᄅᆞᆷ이라 허믈ᄒᆞ랴
셜워 플텨 혜니 조믈(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ᄉᆡᆼ각 마오 ᄆᆡ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믈 ᄀᆞᄐᆞᆫ 얼굴이 편ᄒᆞ실 적 몃 날일고
츈한 고열(春寒苦熱)은 엇디ᄒᆞ야 디내시며
츄일 동텬(秋日冬天)은 뉘라셔 뫼셧ᄂᆞᆫ고
쥭조반(粥早飯) 죠셕(朝夕) 뫼 녜와 ᄀᆞᆺ티 셰시ᄂᆞᆫ가
기나긴 밤의 ᄌᆞᆷ은 엇디 자시ᄂᆞᆫ고
님다히 쇼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쟈 ᄒᆞ니
오ᄂᆞᆯ도 거의로다 ᄂᆡ일이나 사ᄅᆞᆷ 올가
내 ᄆᆞᄋᆞᆷ 둘 ᄃᆡ 업다 어드러로 가쟛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놉픈 뫼ᄒᆡ 올라가니
㉠ 구롬은ᄀᆞ니와 ㉡ 안개ᄂᆞᆫ ᄆᆞᄉᆞ 일고
산쳔(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쳑(咫尺)을 모ᄅᆞ거든 쳔 리(千里)ᄅᆞᆯ ᄇᆞ라보랴
ᄎᆞᆯ하리 믈ᄀᆞ의 가 ᄇᆡ길히나 보랴 ᄒᆞ니
㉢ ᄇᆞ람이야 ㉣ 믈결이야 어둥졍 된뎌이고
샤공은 어ᄃᆡ 가고 ᄇᆡᆫ ᄇᆡ만 걸렷ᄂᆞᆫ고
강텬(江天)의 혼자 셔셔 디ᄂᆞᆫ ᄒᆡ ᄅᆞᆯ 구버보니
님다히 쇼식(消息)이 더옥 아득ᄒᆞᆫ뎌이고
모쳠(茅簷) ᄎᆞᆫ 자리의 밤듕만 도라오니
반벽 쳥등(半壁靑燈)은 눌 위ᄒᆞ야 ᄇᆞᆯ갓ᄂᆞᆫ고
오ᄅᆞ며 ᄂᆞ리며 헤ᄯᅳ며 바자니니
져근덧 녁진(力盡)ᄒᆞ야 풋ᄌᆞᆷ을 잠간 드니
졍셩(精誠)이 지극ᄒᆞ야 ᄭᅮᆷ의 님을 보니
옥(玉) ᄀᆞᄐᆞᆫ 얼구리 반(半)이 나마 늘거셰라
ᄆᆞᄋᆞᆷ의 머근 말ᄉᆞᆷ 슬ᄀᆞ장 ᄉᆞᆲ쟈 ᄒᆞ니
눈믈이 바라 나니 말ᄉᆞᆷ인들 어이 ᄒᆞ며
졍(情)을 못다ᄒᆞ야 목이조차 몌여ᄒᆞ니
오뎐된 ㉤ 계셩(鷄聲)의 ᄌᆞᆷ은 엇디 ᄭᅵᆺ돗던고
어와 허ᄉᆞ(虛事)로다 이 님이 어ᄃᆡ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ᄇᆞ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ᄎᆞᆯ ᄲᅮᆫ이로다
ᄎᆞᆯ하리 ᄉᆡ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ᄒᆡ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ᄃᆞᆯ이야ᄀᆞ니와 구ᄌᆞᆫ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

1.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작가가 관직에서 물러나 창평에 은거하던 시기에 창작되었다.
② 임금을 향한 그리움을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
③ 「사미인곡」의 속편에 해당하는 작품이며, '충

신연주지사'로 분류된다.

④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⑤ 한자 숙어의 사용을 배제하고 우리 고유어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2. 윗글의 형식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두 명의 화자를 설정하여 대화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중심 화자인 '을녀'가 자신의 사연을 하소연하면 보조 화자인 '갑녀'가 이를 듣는 구조이다.

③ '갑녀'는 '을녀'의 하소연을 유도하고 위로하며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④ 독백체인 「사미인곡」과 달리, 대화체를 사용하여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느낌을 준다.

⑤ 두 화자의 문답은 '을녀'의 질문과 '갑녀'의 대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3. 윗글을 감상한 학생들의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학생 1: '갑녀'가 먼저 '데 가는 뎌 각시 본 듯도 흔뎌이고'라며 '을녀'에게 말을 걸면서 작품이 시작되고 있어.

② 학생 2: '을녀'는 임과 이별한 이유를 '내 몸의 지은 죄'와 '조믈(造物)의 타시'라고 생각하고 있네.

③ 학생 3: '을녀'는 임이 계신 곳의 소식을 알기 위해 '놉픈 뫼'와 '물가'로 공간을 이동하며 노력했어.

④ 학생 4: '을녀'는 꿈속에서 임을 만났지만, '오뎐된 계셩(鷄聲)' 때문에 임에게 마음속 말을 다 전하지 못하고 잠에서 깨고 말았어.

⑤ 학생 5: '을녀'는 '모쳠(茅檐)'에 돌아와 '반벽 쳥등(半壁靑燈)'을 켜고 임과의 재회를 간절히 기원했어.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 ㉡은 화자가 산에서 '일월(日月)'(임)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다.

② ㉢과 ㉣은 화자가 물가에서 뱃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다.

③ ㉠, ㉡, ㉢, ㉣은 작가의 창작 배경을 고려할 때, 조정을 어지럽히는 간신이나 정적(政敵)들로 해석할 수 있다.

④ ㉤은 '을녀'가 임에게 'ᄆᆞᄋᆞᆷ의 머근 말ᄉᆞᆷ'을 다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망의 대상이다.

⑤ ㉠~㉣은 임과의 거리감을 드러내는 자연물이지만, ㉤은 임과의 재회를 돕는 매개체이다.

【5~6】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엇그제 님을 뫼셔 광한전(廣寒殿)의 올낫더니
그 더ᄃᆡ 엇디ᄒᆞ야 하계(下界)에 ᄂᆞ려오니
올 저긔 비슨 머리 헛틀언 디 삼 년(三年)일쇠
연지분(臙脂粉) 잇ᄂᆡ마ᄂᆞᆫ 눌 위ᄒᆞ야 고이 홀고

ᄆᆞᄋᆞᆷ의 ᄆᆡ친 실음 텹텹(疊疊)이 싸혀 이셔
짓ᄂᆞ니 한숨이오 디ᄂᆞ니 눈믈이라
인ᄉᆡᆼ(人生)은 유ᄒᆞᆫ(有限)ᄒᆞᆫᄃᆡ 시름도 그지업다
무심(無心)ᄒᆞᆫ 셰월(歲月)은 믈 흐ᄅᆞᄃᆞᆺ ᄒᆞᄂᆞᆫ고야
염냥(炎凉)이 때를 아라 가ᄂᆞᆫ ᄃᆞᆺ 고텨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늣길 일도 하도 할샤

(중략)

ᄒᆞᄅᆞ도 열두 때 ᄒᆞᆫ 돌도 셜흔 날
져근덧 ᄉᆡᆼ각 마라 이 시름 닛쟈 ᄒᆞ니
ᄆᆞᄋᆞᆷ의 ᄆᆡ쳐 이셔 골수(骨髓)의 ᄉᆡᄎᆞ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다 이 병을 엇디ᄒᆞ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ᄉᆡ어디여 범나ᄇᆡ 되오리다
곳나모 가지마다 간 ᄃᆡ 죡죡 안니다가
향 므틴 놀애로 님의 오ᄉᆡ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ᄅᆞ셔도 내 님 조ᄎᆞ려 ᄒᆞ노라

– 정철, 「사미인곡」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5. 윗글과 <보기>의 형식상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윗글과 <보기> 모두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임(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연군지정)을 노래한다.
② 윗글과 <보기> 모두 임금이 계신 궁궐을 천상의 공간에 빗대어 표현한다.
③ 윗글은 두 여인의 대화체로, <보기>는 한 여인의 독백체로 시상이 전개된다.
④ 윗글은 문답(問答)에 따라, <보기>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본사의 시상을 전개한다.
⑤ 윗글은 우리말의 묘미를 살리고 있으며, <보기>는 한자어와 전고(典故)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6. 윗글의 '을녀'와 <보기>의 화자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임과 이별한 원인을 임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고 있다.
② 임이 계신 궁궐을 떠나 하계(지상)로 내려온 처지이다.
③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④ 죽어서 '낙월'이나 '범나비'가 되어 임을 따르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⑤ 한자어와 고사를 사용하여 자신의 학식과 충성심을 드러낸다.

【7~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뎨 가ᄂᆞᆫ 뎌 각시 본 듯도 ᄒᆞᆫ뎌이고
텬샹(天上) 빅옥경(白玉京)을 엇디ᄒᆞ야 니별(離別)ᄒᆞ고
ᄒᆡ 다 뎌 져믄 날의 눌을 보라 가시ᄂᆞᆫ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ᄉᆞ셜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얌즉 ᄒᆞᆫ가마ᄂᆞᆫ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ᄉᆡ
나도 님을 미더 군ᄠᅳ디 젼혀 업서
이릐야 교틔야 어ᄌᆞ러이 ᄒᆞ돗썬디
반기시ᄂᆞᆫ ᄂᆞᆺ비치 녜와 엇디 다ᄅᆞ신고
누어 ᄉᆡᆼ각ᄒᆞ고 니러 안자 혜여ᄒᆞ니
내 몸의 지은 죄 뫼ᄀᆞ티 빠혀시니
하ᄂᆞᆯ히라 원망ᄒᆞ며 사ᄅᆞᆷ이라 허믈ᄒᆞ랴
셜워 플텨 혜니 조믈(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ᄉᆡᆼ각 마오 ᄆᆡ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믈 ᄀᆞᄐᆞᆫ 얼굴이 편ᄒᆞ실 적 몃 날일고
츈한 고열(春寒苦熱)은 엇디ᄒᆞ야 디내시며
츄일 동텬(秋日冬天)은 뉘라셔 뫼셧ᄂᆞᆫ고
죽조반(粥早飯) 죠셕(朝夕) 뫼 녜와 ᄀᆞᆺ티 셰시ᄂᆞᆫ가
기나긴 밤의 ᄌᆞᆷ은 엇디 자시ᄂᆞᆫ고
님다히 쇼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쟈 ᄒᆞ니
오ᄂᆞᆯ도 거의로다 ᄂᆡ일이나 사ᄅᆞᆷ 올가
내 ᄆᆞ옴 둘 ᄃᆡ 업다 어드러로 가쟛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놉픈 뫼히 올라가니
구ᄅᆞᆷ은ᄏᆞ니와 안개ᄂᆞᆫ ᄆᆞᄉᆞ 일고
산쳔(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쳑(咫尺)을 모ᄅᆞ거든 쳔 리(千里)ᄅᆞᆯ ᄇᆞ라보랴
ᄎᆞᆯ하리 믈ᄀᆞ의 가 ᄇᆡ길히나 보랴 ᄒᆞ니
ᄇᆞ람이야 믈결이야 어둥졍 된뎌이고
샤공은 어ᄃᆡ 가고 븬 ᄇᆡ만 걸렷ᄂᆞᆫ고
강텬(江天)의 혼자 셔셔 디ᄂᆞᆫ ᄒᆡᄅᆞᆯ 구버보니
님다히 쇼식(消息)이 더옥 아득ᄒᆞᆫ뎌이고
모쳠(茅簷) ᄎᆞᆫ 자리의 밤듕만 도라오니
반벽 쳥등(半壁靑燈)은 눌 위ᄒᆞ야 ᄇᆞᆯ갓ᄂᆞᆫ고
오ᄅᆞ며 ᄂᆞ리며 헤ᄯᅳ며 바자니니
져근덧 녁진(力盡)ᄒᆞ야 ᄑᆞᆺᄌᆞᆷ을 잠간 드니
졍셩(精誠)이 지극ᄒᆞ야 ᄭᆞᆷ의 님을 보니
옥(玉) ᄀᆞᄐᆞᆫ 얼구리 반(半)이 나마 늘거셰라
ᄆᆞ옴의 머근 말ᄉᆞᆷ 슬ᄏᆞ장 ᄉᆞᆲ쟈 ᄒᆞ니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눈믈이 바라 나니 말ᄉᆞᆷ인들 어이 ᄒᆞ며
졍(情)을 못다ᄒᆞ야 목이조차 몌여ᄒᆞ니
오뎐된 계셩(鷄聲)의 ᄌᆞᆷ은 엇디 ᄭᆡ돗던고
어와 허ᄉᆞ(虛事)로다 이 님이 어ᄃᆡ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ᄇᆞ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ᄎᆞᆯ ᄲᅮᆫ이로다
ᄎᆞᆯ하리 ᄉᆡ여디여 ㉠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ᄃᆞᆯ이야ᄀᆞ니와 ㉡ 구ᄌᆞᆫ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

7. 윗글의 대화 형식이 주는 효과에 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학생 1: 한 사람이 혼자 이야기하는 독백체보다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데 효과적이야.
② 학생 2: 두 사람이 대화하니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입체적인 느낌을 줘.
③ 학생 3: '갑녀'가 '을녀'의 사연에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을녀'의 사연이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게 해.
④ 학생 4: '갑녀'가 질문하고 '을녀'가 대답하는 문답(問答) 방식을 통해 사연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고 있어.
⑤ 학생 5: '갑녀'와 '을녀'가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소망을 이야기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어.

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은 모두 '을녀'가 임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되고 싶어 하는 대상이다.
② ㉠은 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적 사랑, ㉡은 멀리서 지켜보는 소극적 사랑을 의미한다.
③ ㉠은 '을녀'의 소망을, ㉡은 '갑녀'의 조언을 나타내며, ㉡이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④ ㉠은 '갑녀'의 소극적 태도를, ㉡은 '을녀'의 적극적 태도를 보여 준다.
⑤ ㉠은 임과의 재회를, ㉡은 임과의 이별을 상징하는 대조적인 소재이다.

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작가가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얻은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철은 가상의 여성을 화자로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비극적 심정을 대리로 발산하였다. 임금에게 버림받은 불행한 여인이 되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은유를 활용한 것이다. (중략) 작가는 가상의 여성을 화자로 설정하여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 자신의 절절한 심정을 하소연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일편단심과 연군지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려 했을 것이다.

① 임금의 총애를 기다리는 신하의 수동적인 입장을 봉건 사회 여성의 위치에 빗대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② 임금을 향한 그리움과 일편단심을 임을 향한 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정으로 치환하여 독자의 공감을 얻기 쉽다.
③ 남성 신하가 임금에게 직접 충언(忠言)하는 방식보다 자신의 절절한 심정을 하소연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기에 용이하다.
④ '충신연주지사'라는 당대의 관습적인 표현 방식을 따르면서도, 대화체를 도입하여 참신성을 더했다.
⑤ 남성 중심의 봉건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부당한 억압을 고발하고 여성의 권리 신장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10. 꿈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자는 낮 동안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산과 물가를 헤매다 힘이 다해 풋잠이 든다.
② 화자의 간절한 정성이 지극하여 꿈속에서나마 임을 만날 수 있게 된다.
③ 꿈에서 만난 임의 모습은 옥같이 곱던 얼굴이 반 넘어 늙어 있어 화자의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④ 화자는 마음속에 품은 말을 임에게 실컷 사뢰려 했으나, 닭 울음소리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한다.
⑤ 잠에서 깬 화자는 모든 것이 헛된 일(허사)이라며 허탈해하고, 창밖을 보니 '어엿븐 그림재'(가엾은 그림자)만 자신을 따르고 있다.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이 작품은 두 여인의 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며,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것은 「속미인곡」이 아닌 「사미인곡」의 특징이다.

① 이 작품은 작가 정철이 50세 때 당쟁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창평에 은거하던 시기에 창작되었다.

② 임금을 '임'에 비유하고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연군지정)을 노래하고 있다.

③ 이 작품은 「사미인곡」의 속편 격이며, 임금을 그리워하는 신하의 노래라는 뜻의 '충신연주지사'에 해당한다.

⑤ 이 작품은 한자 숙어나 전고(典故)를 배제하고 우리 고유어의 아름다움을 살려 정서를 절절하게 표현했다는 특징이 있다.

2. 정답 ⑤

두 화자의 문답은 보조 화자인 '갑녀'의 질문과 위로, 조언에 대해 중심 화자인 '을녀'가 대답하고 하소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① 이 작품은 '갑녀'와 '을녀'라는 두 여인의 대화체로 구성된다.

② '을녀'는 작가의 처지를 대변하는 중심 화자이며, '갑녀'는 보조적 위치에 있는 화자이다.

③ '갑녀'는 질문, 위로, 조언을 통해 '을녀'의 사연을 이끌어내고 작품을 결말짓는 기능적 역할을 한다.

④ 이 작품은 두 여인이 말을 주고받는 문답식 서술을 취해 입체적인 느낌을 준다.

3. 정답 ⑤

'반벽 청등'은 초가집에 돌아온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가 임과의 재회를 기원하며 직접 켠 등불로 보기는 어렵다.

① 서사 1은 '갑녀'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② '을녀'는 이별의 이유를 자신의 죄가 산같이 쌓여서(자책) 혹은 조물주의 탓(운명)이라고 말한다.

③ '을녀'는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산에 오르고 물가에 간다.

④ '을녀'는 꿈에서 임을 만나 말을 하려 했으나,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계셩)에 잠이 깨고 만다.

4. 정답 ⑤

㉤(계셩, 닭 울음소리)은 화자가 꿈에서 임을 만나 대화하는 것을 방해하고 잠에서 깨게 만드는 장애물이지, 재회를 돕는 매개체가 아니다.

① ㉠(구롬)과 ㉡(안개)은 산천을 어둡게 하여 화자가 '일월'(임)을 보지 못하게 한다.

② ㉢(ᄇᆞ람)과 ㉣(믈결)은 어수선하게 불어 화자가 뱃길을 볼 수 없게 만든다.

③ ㉠~㉣은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가 정철의 정적이었던 동인 세력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을녀'는 꿈에서 임에게 말을 하려 했으나, 눈물이 나고 목이 메어 말을 못 하던 중 ㉤(닭 울음소리) 때문에 잠이 깨버려 임을 원망하게 된다.

5. 정답 ⑤

<보기>는 '광한전(廣寒殿)', '편작(扁鵲)' 등 한자어와 전고를 활용하여 표현한 부분이 있다. 반면 윗글은 이러한 한자 숙어나 전고를 배제하고 우리 고유어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① 두 작품 모두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남녀 간의 관계로 비유한 '충신연주지사'로, 여성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는 주제(연군지정)를 다룬다.

② 윗글은 '백옥경', <보기>는 '광한전'을 임금이 계신 궁궐로 설정하여, 화자가 그곳을 떠나온 '적강 모티프'를 사용한다.

③ 윗글은 '갑녀'와 '을녀'의 대화로, <보기>는 화자 한 명의 독백으로 구성된다.

④ 윗글은 '갑녀'의 질문과 '을녀'의 하소연이라는 문답 구조로, <보기>는 본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순환에 따라 전개된다.

6. 정답 ②

윗글의 '을녀'는 '백옥경'(궁궐)을 이별하고, <보기>의 화자는 '광한전'(궁궐)을 떠나 '하계'로 내려왔다. 이는 모두 임금이 계신 궁궐을 떠나 유배지나 은거지로 물러난 작가의 처지(적강 모티프)를 반영한 것이다.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① 윗글의 '을녀'는 '내 몸의 지은 죄'나 '조물주의 탓'을 하고, <보기>의 화자는 '이 님의 타시로다'라고 하지만, 이는 사랑으로 인한 병(사모의 정)을 강조하는 표현이지 임에 대한 원망으로 보기 어렵다.
③ 계절의 변화(춘하추동)에 따른 시상 전개는 <보기>의 특징이다.
④ '낙월'과 '범나비'는 모두 임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따르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반영한다.
⑤ 한자어와 고사 사용은 주로 <보기>의 특징이며, 윗글은 우리말 표현이 돋보인다.

7. 정답 ⑤
'갑녀'와 '을녀'는 동일한 입장이 아니다. '갑녀'는 보조적·기능적 역할을 하며, '을녀'는 중심 화자 이다. 또한 결사에서 '을녀'는 소극적인 '낙월'을, '갑녀'는 적극적인 '궂은비'를 말하며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① 독백체와 달리 문답식 서술은 독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② 대화 형식은 장면성을 선명하게 하고 입체적인 느낌을 주어 흥미를 자아낸다.
③ '갑녀'가 '을녀'의 사연에 개입하여 위로하고 공감함으로써, '을녀'의 사연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연으로 드러나게 한다.
④ '갑녀'의 질문과 위로를 통해 '을녀'의 하소연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8. 정답 ③
㉠ '낙월'은 '을녀'가 죽어서라도 되고 싶어 하는 대상으로, 임을 멀리서 비추는 소극적 사랑을 의미한다. ㉡ '구즌비'는 '갑녀'가 '을녀'에게 대신 제안하는 것으로, 임의 옷을 적실 만큼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적 사랑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① ㉠은 '을녀'의 소망이지만, ㉡은 '갑녀'의 조언이다.
② ㉠은 소극적 사랑, ㉡은 적극적 사랑이다.
④ ㉠은 '을녀'의 소극적 태도, ㉡은 '갑녀'의 적극적 조언이다.
⑤ ㉠과 ㉡은 모두 죽어서라도 임과 함께하고 싶은 화자의 분신이자 매개체이다.

9. 정답 ⑤
<보기>와 작품의 맥락을 고려할 때, 여성 화자는 작가 자신의 '연군지정'(임금에 대한 충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이지, 여성의 권리 신장이나 봉건 사회 비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① <보기>는 작가의 처지가 임의 사랑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여성의 위치와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② <보기>는 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정에 호소하여 독자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③ <보기>는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 절절한 심정을 하소연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연군지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고 설명한다.
④ 이 작품은 임과 이별한 여성을 화자로 설정하는 관습적인 방식(충신연주지사)을 따르면서도, 독백체인 「사미인곡」과 달리 대화체를 사용하여 참신성을 획득했다.

10. 정답 ④
화자가 임에게 말을 하지 못한 것은 '눈물이 바라 나니 말숨인들 어이 ᄒᆞ며, 졍(情)을 못다ᄒᆞ야 목이조차 메여ᄒᆞ니' 즉, 눈물이 나고 목이 메었기 때문이다. '닭 울음소리(계셩)'는 그 후에 잠을 깨게 만든 원인이다.
① '오ᄅᆞ며 ᄂᆞ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져근덧 녁진(力盡)ᄒᆞ야 풋잠을 잠간 드니'라고 하였다.
② '졍셩(精誠)이 지극ᄒᆞ야 ᄭᆞᆷ의 님을 보니'에서 알 수 있듯이, 꿈은 정성의 결과이다.
③ '옥(玉) ᄀᆞ튼 얼구리 반(半)이 나마 늘거셰라'라며 임의 모습을 묘사한다.
⑤ '어와 허ᄉᆞ(虛事)로다 이 님이 어ᄃᆡ 간고'라며 허탈해하고, '어엿븐 그림재 날 조촐 뿐이로다'라며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한다.

무단배포금지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